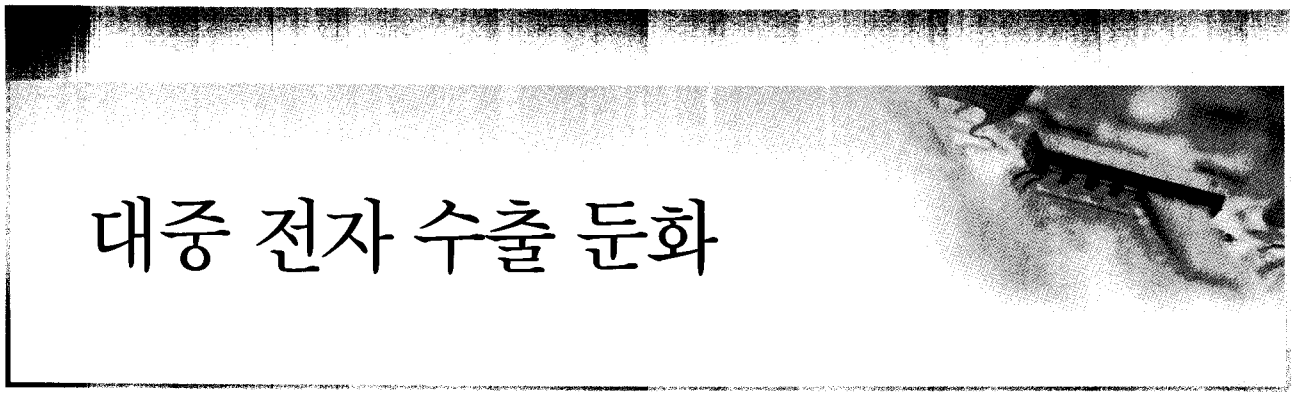

대중 전자 수출 둔화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005년을 정점으로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전년대비 -23.7%, 45억불 감소한 145억불을 기록하였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 한국의 대중국 교역 동향과 시사점에서 분석되었다.

2008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11.5% 증가한 914억불, 수입은 22.1% 증가한 796억불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1.7%이며,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가 -133억불 적자로 전환된 반면,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145억불 흑자로서 2005년부터 대중 무역수지가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를 상회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 주요 수출품목〉

(단위:백만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2009년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평판디스플레이및 센서	7058	20.3	2221	26.8
2	무선통신기기	6484	14.1	1373	-7.1
3	반도체	8729	-5.7	1332	-37.4
4	합성수지	5333	16.9	1189	-7.5
5	석유제품	8517	63.5	955	-40.1
6	철강판	2996	23.0	673	-2.8
7	석유화학합섬원료	3381	14.3	612	-31.4
8	컴퓨터	4148	-30.0	573	-57.4
9	자동차부품	1945	-15.0	433	-27.2
10	석유화학중간원료	2838	0.4	412	-46.8

중국 2003년 이후 최대 수출대상국

중국은 2003년에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2005년 이후 20% 이상의 높은 수출점유율을 나타내었다. 한국의 대중 수출과 수입은 2008년 4분기에 -23.9%, -9.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무역수지가 전년 동기대비 38.6억불(-72.8%) 감소하였다.

2008년 10월부터 한국의 대중 수출이 감소(-3.5%)하기 시작하여 11월 -33.3%, 12월 -35.4%의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09년 1월 -38.6%, 2월 -13.6%, 3월 -22.2%를 기록하였다. 대중 수입증가율도 작년 10월부터 둔화되면서 11월 -14.2%, 12월 -22.6%, 2009년 1월 -35.0%, 2월 -30.9%, 3월 -29.8%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대중 수출은 전년대비 59.6%포인트 증가한 석유제품(63.5%)의 수출 확대가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

하였고, 합성수지, 석유화학 합성원료, 철강판 등이 수출 호조품목이다.

평판디스플레이 대중 수출 금년 들어 두 자리 수 증가

반면, 반도체가 -5.7%, 컴퓨터가 -30%로 수출증가율이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등은 증가율이 대폭 둔화되었다. 2009년 1-3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5.1% 감소했으며, MTI 3단위 기준 10대 대중국 수출 품목 중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26.8%)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37.4%), 컴퓨터(-57.4%) 등은 약 40-50%대의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9년 3월 누계 대중국 수출품목 1위인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는 2008년 70.6억불로 전년보다 20.3% 증가하였고, 2009년 3월 누계 22.21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26.8% 증가하였다. 2위인 무선통신기기는 2008년 64.8억불로 전년보다 14.1% 증가하였으나, 2009년 3월 누계 13.7억불로 7.1% 감소하였다. 3위인 반도체는 2008년 87.2억불로 전년보다 5.7% 감소하였고, 2009년 3월 누계 13.3억불로 37.4% 크게 줄어들었다. 8위인 컴퓨터는 2008년 41.5억불로 전년보다 30% 감소하였고, 2009년 3월 누계 5.7억불로 57.4% 격감하였다.

〈한국의 대중 주요 수입품목〉

(단위:백만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2009년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철강판	9622	116.9	1154	-36.1
2	컴퓨터	4858	0.2	988	-33.3
3	반도체	5864	39.3	967	-26.3
4	평판디스플레이및 센서	3391	32.7	732	-6.9
5	의류	3078	-6.3	519	-32.8
6	무선통신기기	2185	20.3	367	-22.6
7	석탄	2815	74.3	338	-7.5
8	레일및철구조물	950	98.8	324	50.6
9	정밀화학원료	2057	37.2	289	-37.4
10	선박해양구조물및 부품	774	128.2	283	91.9

무선통신기기, 반도체는 대중 수출 감소

2009년 3월 누계 한국의 대중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31.9% 감소했으며, MTI 3단위 기준 10대 대중 수입 품목 중 레일 및 철구조물(50.6%),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91.9%)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입이 감소했다.

2009년 3월 누계 2위인 컴퓨터는 2008년 48.6억불로 전년보다 0.2% 증가하였으나, 2009년 3월 누계 9.9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33.3% 감소했다. 3위인 반도체는 2008년 58.6억불로 39.3% 증가하였고, 2009년 3월 누계 9.7억불로 26.3% 감소했다. 4위인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는 2008년 33.9억불로 32.7% 증가하였으나, 2009년 3월 누계 7.3억불로 6.9% 감소했다. 6위인 무선통신기기는 2008년 21.9억불로 20.3% 증가하였고, 2009년 3월 누계 3.7억불로 22.6% 감소했다.

대중 수입은 대부분 크게 감소

대중 수출 급감 품목을 파악하기 위해 월별 수출 품목을 분석해보면, 2008년 10월부터 수출증가율 감소 품목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MTI 3단위 1위에서 50위까지 대중국 수출품목에서 11월, 12월에 크게 늘어났다. 2008년 10월 중 18개, 11월에 35개, 12월에 30개, 2009년 1월에는 31개 품목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2월에는 25개로 감소 품목이 줄었고,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이 15개로 이전 3개월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3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된 품목이 전월 대비 늘었으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을 10개로서 지난해 말보다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9년 2월부터 연속 2개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MTI 83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 1위인 이의 수출은 12월(-44%), 1월(-10%)

의 감소세에서 2월과 3월에 증가율이 43.2%, 48.9%로 급반등하였다. 중국의 가전하향정책으로 인한 LCD부품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전하향정책으로 평판디스플레이 수혜

가전하향정책은 중국정부가 농촌의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 농업 비중이 높고, 인구가 많은 산동, 허난, 쓰촨 등 3개 성의 농민을 대상으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하여왔다. 중국정부는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2009년 2월 1일부터 4년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농민이 가전하향에 해당되는 컬러TV, 냉장고, 휴대폰, 컴퓨터, 온수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전자조리기 등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상품판매가의 13%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대중 수출 품목을 가공단계별로 구분하면, 2008년도 전체 대중 수출의 77.8%가 부품 및 부분품, 산업용 원자재, 연료 및 윤활유 등 중간재이며 최종재는 21.3%이다. 그리고, 부품 및 부분품은 전년대비 7.8% 증가, 산업용 원자재는 9.7% 증가, 자본재는 6% 증가로 수출이 부진하였으나, 산업용연료 및 윤활유의 대중 수출은 유가상승 요인으로 64% 급증하여 대중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수출의 70% 이상이 중간재

한국의 대중 수출 둔화는 중국정부의 가공무역규제, 수출규제정책 등 무역규제정책과 위안화 절상, 선진국 경기위축, 중국내 수입대체 추진 등 여러 요인을 들 수 있다. 중국정부가 2006년 하반기 이후 무역규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수출이 위축되고 수출용 중간재 수입이 둔화되었다.

지난 4분기 이후 국제 금융위기가 중국의 수출을 약화시키고 중국내 소비심리를 저하시키면서 국내 소비, 산업생산 둔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중국의 소비재 및 중간재 수입이 둔화되었다. 현지 한국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로 한국의 대중 투자와 현지 한국기업의 생산, 수출이 줄면서 기업내 무역도 줄어든 것이다. 또한, 중국이 수입의존적 수출 구조를 탈피하면서 수출용 중간재 수입도 둔화된 것이다.

먼저, 글로벌 경기 악화에 따른 중국의 수출 감소 영향이다. 2008년도 한국의 대중 수출 품목의 77.8%가 중간재임을 감안하면 중국의 수출 감소는 곧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를 초래한다. 중국의 대세계 수출과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을 월별로 비교해보면, 2008년 10월부터 그 추이가 일치한다.

글로벌 경기악화, 중국의 수출감소가 대중수출감소 초래

2009년 3개월간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나, 2월과 3월 중국의 수입증가율은 감소폭이 1월보다 대폭 축소되었다. 한국 통계 기준으로 본, 한국의 대중 수출도 1월 -38.6%에서 2월, 3월에 -13.4%, -22.2%로 감소정도가 완화되었다. 이는 최근 3개월간 한국의 대중 수출이 내수시장을 겨냥한 제품군을 위주로 증가하였음을 반영한 것이다. 2008년 12월부터 새롭게 증가하기 시작한 수출품목들이 중국의 내수 부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인프라 건설 및 가전하향정책과 관련된 기계류 부품, 철강 중간재,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이다. 2006년 상반기 이후 중국이 수출규제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이전에 비해 10%포인트 정도 하락한 것이다.

	2008년					2009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대중수출	19.3	15.0	-3.5	-33.3	-35.4	-38.6	-13.4	-22.2
대중수입	37.3	47.2	8.4	-14.2	-22.6	-35.0	-30.9	-29.8
중국수출	21.1	21.4	19.1	-2.2	-2.8	-17.6	-25.7	-17.3
중국수입	22.9	20.4	15.4	-17.9	-21.3	-43.3	-24.1	-25.2
중국의 대한수입	10.2	8.2	4.9	-30.2	-30.0	-46.6	-20.4	-19.5

2008년 3분기 이전까지 중국정부의 가공무역규제,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등 무역규제조치, 위안화 절상의 영향으로 가공무역 수출을 중심으로 수출증가율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가공무역 규제 강화로 한국의 중간재 둔화

2006년 하반기 이후 2008년 상반기까지 중국은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였고, 위안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2005년 7월 통화바스켓제도 도입 이후 현재 약 20% 이상 절상되었다. 작년 4분기 이후 세계금융위기에 따라 세계시장의 수요 감소로 중국의 가공무역은 물론 일반 무역 수출도 급락하였다. 4분기 수출증가율은 전체가 4.3%, 일반무역 수출이 12.2%, 가공무역 수출이 -6.2%인 것이다.

중국 수입에서 가공무역 비중은 38.6%이고, 대중 수출에서 미국의 경우 26.7%, 일본은 44.2%, 대만은 68.4%이고, 한국은 54.3%이다. 가공무역 비중은 가공무역수입을 상대국으로부터 총수입으로 나눈 것이다. 중국의 가공무역 및 수출에 대한 증치세 환급률 인하는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둔화로 이어진 것이다.

중국 산업의 고도화와 수입 대체 영향이다. 중국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중간재 분야에서 수입대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소비재의 경우 성숙기의 산업단계에 진입하였고, 중간재는 수입대체 속도가 빠르나 여전히 수입대체단계이고, 자본재는 2005년 이후 수입 특화산업에서 수출특화산업으로 전환되었다.

가전기기부품은 수출산업화단계 진입

한국의 주요 대중 수출 품목인 가전기기부품, 컴퓨터부품, 통신기기부품, 자동차부품의 경우 중국도 수출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반면, 기계부품, 반도체의 경우 여전히 수입특화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지 한국계 기업의 생산 위축과 기업내 무역 위축 영향을 들 수 있다. 한국의 대중 투자가 감소하면서 한국의 대중 투자용 설비 수출이 감소한다. 2008년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는 31.4억불로 전년보다 14.8% 감소하였고, 대중 투자용 설비 수출도 7.5% 감소했다. 중국의 2008년 외국인 투자금액은 923.9억불로 전년보다 23.6%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국내 외자계 기업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특히 현지 한국기업을 향한 부품과 소재 수출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의 75%가 현지 외자기업을 향한 수출이다. 그리고, 현지 한국기업을 향한 부품과 소재 수출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현지 법인의 생산과 한국의 대중 수출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의 약 반이 현지 한국계 기업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 부품소재 수출 개선 조짐

금년 들어 한국의 대중 부품 소재 수출 부진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고 있다. 2009년 1분기 한국의 대중 부품 소재 무역수지는 51억불로 전체 대중 무역수지인 42.8억불을 상회한 것이다. 2008년 12월까지 한국의 대중 전체 수출증가율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던 대중 부품소재 수출증가율이 2009년 1월에는 32.3%로 급증하였으며, 2월과 3월의 수출증가율은 감소세이지만 전체 대중 수출증가율을 상회한 것이다.

향후 내수부양조치에 맞춘 대중 수출마케팅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기계류, 가전하향정책과 관련된 가전부품, 중소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인하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자동차 부품 수출의 확대 가능성이 증대한다.

한중간 무역 마찰 증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불황에 따른 중국기업의 도산, 경영 악화로 인해 중국내에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확산되고 있어 양국간 무역마찰이 빈번해질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정책 변화에 맞춘 수출상품의 다각화가 필요하다.